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향해

A Stance on Globalization in Architecture

김영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Young-Soo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丁丑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시고 일년내내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첫날부터 瑞雪이 내려서인지 모든 것들이 더욱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보다 새로운 꿈과 크나큰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1997년!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건축의 이상과 건축사의 미래를 새롭게 되새겨 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올 한해 우리 건축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우리의 건축사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WTO출범,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여파와 국제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밀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건축상황 역시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경기의 연속선상에서 극복의 한계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계 내부적으로는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건축수준에 부응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필연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丁丑年 올 한해는 우리 건축과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 건축의 운명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날의 의식, 어제까지의 관행에 안주하면 우리는 그나마 지금의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념과 의지로 뭉쳐져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히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21세기를 맞이할 우리 건축 및 건축사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말그대로 우리건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사의 설계능력만을 높이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 각종 건축관련 법률 및 정책, 그리고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등이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학계의 실력은 물론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전문조직으로서 건축사협회의 선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협회는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 건축사의 생존권 확보와 건축사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명제로서 건축관련 법률 및 제도정비, WTO대책수립, 건축의 대국민 홍보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연구소와 건축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능력과 설계수준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건축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둘째는, 목표를 강력히 실천해나갈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인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천을 위한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을 때는 한낱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건축계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건축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축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문화의 수준향상을 통해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계 전체를 위해서는 건축3단체의 발전적인 대통합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내 건축전담국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실질적인 건축정보공유를 위한 Network도 신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사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15개 시도건축사회를 포함한 협회조직과 운영체계를 보다 새롭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확대문제,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정관 등도 현실성있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야별로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과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사무처의 전문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지난달 협회내에 신설된 협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축정보센터추진위원회, 회관재건추진위원회,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97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와 WTO대책위원회 등은 모두 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추진기구들입니다.

그 셋째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수시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협회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내의 공식회의체와 홍보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원들이 협회가 하는 일을 신속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과 협회가 원활한 쌍방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건축관련 현안과제 및 장단기 협회추진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건축계에 만연해 있는 파벌주의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분파주의 등도 우리건축의 앞날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무대가 아닌 세계무대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타파하지 않으면 안될 급선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건축사가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제 小我的인 자기이기에 서 탈피하여 모든 건축사가 大乘의으로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건축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인들이 하나로 뭉쳐 대응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화려한 이상에 비해 그것을 실천할 토양조건과 확고한 의지부족으로 인해 빈번히 시행착오와 후회를 함께 경험한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前轍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丁丑年 새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모두 새롭게 도약합니다. 새해 새아침의 瑞靄와 햇살은 목표를 향해 성실히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성공으로 더욱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건축사가 심기일전하여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지평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때, 그 앞에는 언제나 저희 집행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올 한해도 회원님과 여러분의 기정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